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8월 16일(주일) 제1061호



2013년 회복축제 '왕의 임재'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9월 9~1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막 올라
짐 와일더 박사, 에드 쿠리 목사, 전문의 칼 레이먼 초청

2015 회복축제 'The 기쁨'이 막 오른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나흘 동안 진행된다. '기쁨의 회복'을 주제로 강의와 '암마누엘 테라피'를 주제로 세미나가 병행된다. 이번 회복축제의 목적은 성숙을 위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

유와 회복 분야의 권위자들을 초청했다. 30년 임상 경력을 가진 짐 와일더 박사(세퍼드하우스 대표), 국제적 중독과 외상 회복 훈련자 에드 쿠리 목사(국제 약물남용과 중독 연합 사무국장), 25년 경력과 4만 시간 임상 경험을 가진 정신과 전문의 칼 레이먼이 그

주인공이다. 게스트들도 화려하다.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사랑챔버, 예꿈 뮤지컬팀, 건강전도사 정주호, 목회자 콘서트, 난타팀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회복축제 회비는 7만원이다. 8월 31일 이전까지 등록하거나 단체(10인 이상)로 접수하면 2만 원을 할인해 준다. 참

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2008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회복사역은 2004년 회복사역본부로 재편됐고, 2005년부터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 영적 성숙을 목표로 축제를 열고 있다.
입금계좌: 573-910004-30205(예금주: 온누리교회 회복축제)
문의: 02-3215-3355, 02-570-7522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임직후보자
개인영성훈련 시작

10월 15일까지 제출

2015년 임직후보자들의 개인영성훈련이 시작됐다. 10월 15일까지 신앙통독, 새벽기도(20일 이상), 독서보고서(필독서 3권), 큐티말씀 묵상노트 작성, 봉사활동(25시간을 이수하고 과제물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주차 봉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남자는 6시간, 여자는 3시간이다. 주차봉사 1회마다 봉사시간 3시간을 인정해 준다. 주일 교회정문 초소에서 주차지역팀장이나 총무를 찾으면 된다. 2015년 임직자 스쿨은 9월 5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9주 동안 진행된다. 개강예배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 비전홀에서 드린다. 임직후보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문의: 전선아 간사 02-3215-3361

성찬용 포도즙 제조

서빙고 8월 24~25일, 양재 31일~9월1일

성찬용 포도즙을 제조한다. 서빙고는 8월 24일과 25일, 양재는 8월 31일과 9월 1일에 만든다. 이에 따라 서빙고 한식당은 25일(아침)부터 26일(점심)까지 이용할 수 없다. 성찬용 포도즙 제조에 앞서 봉사자 교육 및 헌신예배를

8월 19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콘서트홀(신관 지하2층)에서 드린다. 권사 임직대상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양재는 별도의 사전 모임이 없다.
문의: 서빙고 복인수 간사 02-3215-3333
양재 정애린 간사 02-570-7433

서빙고			양재		
일시	8월24일(월)	8월25일(화)	일시	8월31일(월)	9월1일(화)
9:00~13:00	-	노원, 중종로, 가정사역, 동대문중앙, 동작, 이수, 서대문, 김포, 강서	10:00~15:00	산본안산, 과천의왕, 안양평촌, 서초B	분당A, 분당B, 강남C
14:00~18:00	일산, 고양은평, 성북, 영등포구로, 여의도, 성동광진, 관악금천, 양천	서빙고, 한강, 이촌, 강촌, 용산, 신원산, 마포, 북누리, 광명	15:00~20:00	강남A, 강남B, 강남D, 송파	서초A, 서초C, 서초D, 양재

인물_ 만나고 싶었습니다 >> 2면

기획_ 통일 향한 한국 교회의 과제 >> 4-5면

기고_ 네팔의 음식과 결혼 문화 >> 9면

아픔 달래고, 다시 가정을 꾸리기까지

‘이혼자 행복학교’에서 만나 재혼한
김재영, 나지원 성도

여기 다시 가정을 꾸린 부부가 있다. 이혼의 아픔을 달래려 무작정 찾아간 ‘이혼자 행복학교’에서 반려자를 만났다. 그들과의 만남이 왠지 조심스러웠다.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다.

그들은 정말 특별했다. 조금의 염려도, 걱정도 필요 없었다.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부부의 얼굴에는 천국이 임재해 있었다. 부부는 기사를 만난 순간부터 어디선가 이혼의 아픔을 혼자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혼자 행복학교에 오라고 권유하고 싶다고 했다.

오늘 만난 인물은 이혼자 행복학교 김재영 팀장과 나지원 총무 부부다. 그들은 지난 해 4월 1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이혼자 행복학교의 리더십을 맡고 있는 그들이 재혼한 것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 분명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재혼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어요”

나지원 총무의 말 한마디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따갑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혼한 것만으로도 큰 상처인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당해야 하니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혼의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재혼을 하더라도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재영 팀장이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이혼한지 6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이혼자 행복학교를 찾았다. 그때가 2006년이였다. 이혼자 행복학교 1주차 강의를 듣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당시 김재영 팀장에게 교회는 낯선 곳이었다. 그런 그가 달라졌다. 우연히 드린 주일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 찬양이 제 마음과 귀에 완전히 꽂혔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온 탕자’에 비유했다.

첫 만남 그리고 결혼 약속

2009년 2월, 김재영 팀장은 12기 이혼자 행복학

교 조장을 맡았다. 리더십의 권유로 남자대표 총무도 맡게 됐다.

남성들을 위한 ‘Good Life’와 여성들을 위한 DRS(Divorce Recovery School)가 함께 정기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김재영 팀장은 3명의 여자총무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나지원 총무다.

나지원 총무는 2009년 9월 지인의 소개로 이혼자 행복학교를 찾았다. 그녀는 5녀 1남의 막내딸이다. 털털하고 밝은 성격을 지녔다.

나지원 성도는 24살에 미국에서 전 남편과 결혼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당당하게 살다 남편의 외도로 여권 한 장만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이혼자 행복학교는 나지원 성도와 함께 울고 웃었다. 공허함, 갈급함, 거절감, 낮은 자존감 등의 숨겨진 감정들이 드러났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다.

“주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인생의 전반전은 제 뜻대로 살았으니,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2012년 초 여름 아웃리치를 기획하던 중에 김재영 팀장과 나지원 총무가 함께 답사를 갔다. 그들은 오고 가는 길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다.

나지원 총무는 김재영 팀장에게 40일 아침 금식기도 후 답변을 하겠다고 했다. 37일째 되던 날



둘은 약속하고 훈련을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환영이었다. 둘의 만남을 격려하고 축하해줬다. 그렇게 둘은 2014년 4월 11일 당시 이혼자 행복학교 담당 스티브 차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다.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혼자 행복학교 형제, 자매들이었다.

“이혼자 행복학교로 오세요”

김재영 팀장과 나지원 총무에게는 작은 바람이 있었다. 이혼자들뿐만 아니라 재혼자들을 위한 예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과 높은 이혼율을 줄

이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온누리교회에는 바로 그 예배와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자 행복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온누리교회 이혼자 행복학교는 이혼한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01호에서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다. 조별 나눔도 진행한다.

이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혼 위기에 처한 가정, 별거 중인 성도도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많은 이혼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치유와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간증

2014년 4월 11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었다

/ 김재영 팀장(이혼자 행복학교)

중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갔다. 1980년대 20대 중반이었던 나는 민주화 운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당시 정치와 타협하는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때부터 광야생활이 시작됐다. 나는 20대 후반 패션잡지와 여성지 미술부에서 근무했다. 화려함에 취해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압구정동의 화려한 밤은 뱀의 혀와 같이 달콤했다. 쾌락에 취해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단어를 잊어갔다. 적당히 결혼하고 2

세만 잘 낳자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결혼 생활은 불행으로 이어졌다. 매일 새벽 3시까지 일과 술에 빠져 살았다. 1년 동안 그 생활을 반복했다. 직원들은 사표를 냈다. 2년 동안 잘되던 사업이 어느새 밀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다. 장기어음을 받고 사채까지 쓰게 됐다. 2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나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사채업자들을 만나 몇 년 안에 일정 금액을 갚겠다는 것을 합의했다. 8개월 동안 공사판에서 일하다 광고

디자인 기획사에 이력서를 냈다.

2006년 어느 날 아버지학교 진행을 맡고 있던 친구가 꽃다발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고 급히 연락해왔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았다. 그 친구가 나에게 이혼자 행복학교를 추천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섬김의 기쁨을 주셨고, 상처의 흔적들을 지워나가도록 하셨다. 2011년 말, 사채 빚을 정리하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12년 2월 8일 만에 은행거래

가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해 친한 지인들이 재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유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 가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기도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던 중 가제도의 작은 교회로 답사를 가게 됐다. 그렇게 나지원 총무와 인연이 이어졌다. 오고가는 길에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비전이 같았고, 사랑의 언어가 같았다.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나눈 후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이어졌다.

먼저 사귀자고 제의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 4월 11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었다. 새로운 가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부부는 이혼의 치유와 재혼 커플들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영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1~6

“참된 영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영입니다.
참된 영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과제는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압력이나 핍박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더 거룩하고, 정결해졌습니다. 더 강해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들어온 거짓된 영의 사람들에 의해 분열되고, 무너지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만큼 거짓된 영의 영향력이 큼니다. 거짓된 영에 속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잘못된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의 혼란과 위기는 이단이나 사이비 등 거짓된 영에 속한 사람에 의해 생깁니다. C.S. 루이스가 사탄의 입장에서 교회를 무너뜨릴 전략을 편지 형식으로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그것을 잘 설명해줍니다.

거짓된 영 분별하기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들도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교회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1절).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는 연금술사가 금속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원하는 금속만 가려내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없으면 뭇목이 아니라는 세상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영이 많이 활동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끄는 힘이 있다고 모두 진짜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있는 가짜도 있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를 말라”는 말씀이 주어질 때는 오순절 이후 불과 57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할 정도로 거짓된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면 2천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거짓된 영들이 있었겠습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간판 붙였다고 다 믿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목사가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해야 한다는 선포한 내용을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인지,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조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곳곳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요일 2:27).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거짓과 진짜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이비와 이단 백과사전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진짜를 경험해 보면 생깁니다. 모조품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짜의 종류를 다 안다고 해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성도들을 속이는 단계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성령의 은사로 주셨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별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 분별의 능력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은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혼란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 반감과 의심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라

는 단어가 의식화의 출발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 진짜 행복해?”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 그런데도 너는 진짜 행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동안 행복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면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90% 맞는 말에 10% 거짓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단(異端)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름 이’와 ‘끝 단’자를 씁니다.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끝이 다릅니다. 사이비들은 겉으로는 정통 교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이용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단이나 사이비로 인한 피해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교리를 이용합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한국사회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시 펜 루이스가 쓴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거짓의 영은 두 단계로 성도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조하고 모방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 평안, 따뜻함,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위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육체적인 감각이나 분위기로 느끼려는 성도들은 쉽게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큰일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분별력 있게 됩니다. 예리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감성적으로도 풍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체험하는 중에도 생각과 지적인 능력 모두 날카로웠습니다. 밧모 섬에 있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받는 순간

에 이성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성적으로 몰입해서 지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 잘못된 체험입니다. 거짓의 영의 가르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위격까지도 위조하는 단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만 강조하거나 관계를 깨뜨리거나 종속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혼란하게 함으로써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

오늘 본문은 거짓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2-3절).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겠습니까. 그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인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논리 때문입니다. 거기에 영지주의 철학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철학에 사람들이 편승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의심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몸은 ‘소마’, 무덤은 ‘세마’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몸을 악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사람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공격합니다. 주후 57년에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사람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3면에 계속)

광복 70주년 기획 - 통일 향한 한국 교회의 과제

통일, 신앙 돌아보고

통일은 한국 기독교 핵심 과제 ... 복음에 대한 충실성 회복 관건
한국 교회, 험난한 과정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영적 집단 완성할 것



전우택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북한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나라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와 일치된 마음으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반대로 연평도에 대포를 쏘고, 핵실험을 하는 등 한민족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죽는 어린이들을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인 동시에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유원지 시설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다.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이라는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을 가진 나라이자,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많은 인민들이 자기 부모가 죽는 것 같이 대성통곡을 하는 나라다.

북한은 여타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보기 힘든 3대 세습이 버젓이 벌어지고, 온 나라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과 동상으로 가득 차 있는 전근대적인 국가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할 만큼 IT분야나 미사일 개발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이른 현대적 국가이기도 하다.

이렇듯 북한은 두 얼굴을 지닌 나라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 땅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북한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북한은 하나님 없는 비참함 보여주는 예

왜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분단의 고통을 주시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주셨을까? 왜 그분은 세계의 모든 공산국가에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현재에도 북한만은 계속 공산주의 체제로 남아 있게 하실까. 그 결과 북한의 어린이들을 비롯한 아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게 하실까. 특히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극심한 고난 속에 두실까. 우리는 답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몇 가지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인류에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다.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

북한이 제 아무리 자신의 사상과 지도자를 우상화해도 결국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낙원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유대인들이 강렬한 종교성 때문에 도리어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어져야 했던 모순을 범하는 모습을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보고 있다.

둘째, 북한은 남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기독교인들은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증오를 느낀다. 그러나 응징하려는 것으로는 북한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만큼 한국 사람들은 돈에 대한 숭배와 이기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 부재를 우상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자녀로서 진정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마 5:4). 슬픔과 연민을 느끼지 못할 만큼 강박해진 우리 마음을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남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설사 겉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한심스러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

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데드먼즈 투투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끔찍한 악을 저지를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 범죄자들과 똑같은 영향을 받고 똑같은 세뇌를 당했어도 나는 절대 그들처럼 되지 않았을 거라 말할 수 있는 이가 있을까? 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거나 못 본 체하지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중 한 명이 그렇듯 서글픈 처지에 이르렀음을 한탄하며 함께 울자는 것이다. 우리는 값싼 신앙심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같은 처지였을 것이다.”

통일은 인류의 정신적·영적 발전 기폭제

셋째, 한반도의 통일은 인류의 정신적·영적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가장 첨예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체제적으로는 가장 골이 깊은 증오를 발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고, 장기간의 분단 속에서 심각한 이질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인류가 역사 속에서 체험했던 몇 번의 거대한 정신적 혁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영국과 미국의 노예해방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과 같은 수준의 일에 비견될 것이다. 이 일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인류에게 위대한 영적 대각성의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사실 우리 한반도만 특별한 고통을 당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인류 역사에는 우리 민족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통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하기는 어렵다.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인류의 역사에 큰 진전을 만들어낸 경우는 극히 소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짊어져야 할 과제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문제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한계를 뚜렷하게 반영한다. 우리 민족의 분단과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분단의 현실 안에는 인간의 고통, 불완전성, 오만과 독선, 증오와 진인성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한반도의 분단 체제와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복음에 대한 충실성이 엄격히 점검되어야 한다.

저자 미상으로 남겨져 있는 2세기경의 문서〈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 기독교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 혹은 풍습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지역에 살거나 어떤 이상한 방언을 말하거나 혹은 어떤 독특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면 헬라의 도시와 외국의 도시, 어디에나 살았다. 그들은 의복과 음식, 그리고 삶의 다른 면들에 있어서 지방의 풍습을 따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시민권의 놀랍고 유별난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고국에 살고 있으나 이방인이다. 시민으로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그러나 이방인처럼 모든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외국은 그들에게 고국과 같고, 또한 모든 고국은 외국과 같다... 그

회개하는 계기



들은 육신으로 존재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지상에서 그들의 생애를 보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들이다. 그들은 제정된 법을 준수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법보다 탁월하다.” 과연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남한과 북한의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원칙은 분단과 통일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한국 교회는 세속화될수록 외형은 비대해지지만 그 실체가 한없이 작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교회 성장 시기를 마감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그 수적 증가세가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보여주듯 기독교의 생명력은 그 숫자나 세속적 힘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 충실한 정도만이 생명력의 근거였다.

한국 교회는 21세기 한민족의 운명과 통일이라는 과제 앞에서 생명력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복음에 대한 충실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양적인 증가를 잠시 멈추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세속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만들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교회가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야

둘째, 인간과 사회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한편

으로 복음에 대한 충실성은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진실하고 겸손한 섬김으로 표현될 것이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인 지금, 단순히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을 외치거나 신앙인들끼리 모여 열렬한 찬양을 하는 방식을 통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교회 밖 세상이 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회의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묵묵히 돕는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현상은 꼭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 새롭게 대두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다. 기독교가 주목을 받은 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고상함, 구성원들 사이의 한신적인 사랑과 섬김, 특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구제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 교회도 가난한 자, 거리의 기출 청소년들, 미혼모,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 북한 인민 등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의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국민들의 복지 수요는 더욱 급증하는 반면 정부는 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 와중에 사회적 약자들이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 앞에서, 교회는 사회의 낮고 어두운 곳으로 은밀히 내려가 그들을 도움으로써 국가가 미처 다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교회의 힘으로 매꿔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이 훈련을 잘 감당해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의 실제 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통일은 한국 기독교의 핵심적 과제

셋째, 통일 문제를 한국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과제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어느 시대의 교

회든 신앙은 늘 당대의 문제와 함께 존재했다. 가령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 치하에서의 기독교 신앙이, 한국전쟁 시절에는 전쟁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현재는 분단과 통일의 시대이기에 기독교 신앙은 분단과 통일 시대의 기독교 신앙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인간 역사, 세계를 꿰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인들은 본질의 문제를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곧 인간의 죄성, 시대의 특징, 복음의 가르침과 그 적용, 교회와 공동체의 세워짐 등이 분단과 통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 기독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 시대에 충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기독교는 항상 세상 속의 기독교로 존재해왔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신앙적 눈으로 분석한 후 기독교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움직여왔다. 이것은 대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태도와 관계한 문제다. 동시에 앞서 투투 주교의 말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타인의 악 앞에서 우리의 악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타인)을 포함의 죄를 고백하고 그를 위한 대속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태도다.

이제 한국 교회는 통일이라는 과제를 통해 신앙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하여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섬김, 선교에 대한 해석, 복음에 대한 이해, 젊은이들의 비전, 은퇴자들의 활동 등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시점에 들어섰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집단으로 바뀌어갔듯이 우리 민족은 통일이라는 지극히 험난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집단으로 완성되어갈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국과 일본이 청산하지 못한 과거

‘자이니치(在日)’는 우리가 흔히 재일교포, 재일조선인이라고 부르는 일본식 명칭이다.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과 그들의 후손을 지칭한다. 그들을 외면하는 한·일 양국의 비인간성과 시대착오를 알리는 있는 책이 나왔다. 바로 <일본제국 vs 자이니치>다. 자이니치가 일본에 거주한 지가 올해로 70년 되었다. 식민 지배 35년의 두 배다. 그 시간 동안 자이니치들은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다.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고뇌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두 나라로부터 차별받고, 따돌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역사를 고뇌해보자.

이 책의 작가는 3년여를 투자해 이 책을 기획, 제작했다. 410일을 일본 현지에서 보냈고, 인터뷰 녹음 파일은 총 3시간 32분 46초 분량이다. 촬영한 사진만 6249장에 달한다. 가히 자이니치에 대한 인류학적 보고서라고 할만하다.

수원 온누리교회

차세대 필리핀 아웃리치

최다원
(수원 초등부)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부터 그곳에서 만날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이 부풀었다. 우리는 필리핀 보홀지역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언니들이 워십댄스를 할 때 나는 풍선아트를 배웠다. 처음에는 잘 안됐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보니 어느새 예쁘게 만들 수 있었다.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했다. 수건돌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경찰과 도둑 게임이 생 각났다. 필리핀 친구들과 그 놀이들을 실제로 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또 나는 ‘God bless you’ 라는 말을 정말 좋아한다. 이 말의 의미와 어감이 너무 좋다. 필리핀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 말을 꼭 들려줘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필리핀 아웃리치 가는 날이 왔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신기했다. 가슴이 쿵쿵쿵 거렸다. 나는 비행기도 처음 타고 외국에 가는 것도 처음이다. 가내식도 처음 먹어봤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것 같다. 내가 먹은 가내식은 맛이 없었다. 게다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내내 귀가 웅웅거리고

아팠다. 그래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옆으로 기울 어지고 갑자기 내려가는 느낌은 스릴 있었다. 사실 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 화장실 변기에 구멍이 있어 하늘에서 바로 뿌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오물이 하늘에서 뿌려진다니 상상만 해도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타본 비행기에서 내려 드디어 필리핀 보홀 ‘답답 리조트’에 도착했다. 리조트 이름을 듣고 왠지 답답한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리조트 앞에는 넓게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무슨 공연을 하는지 화장을 한 예쁜 아이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이름처럼 답답한 곳이 아니어서 좋았다.

다음날에는 사역지에 갔다. 그곳에는 두 대의 농구대가 있었다.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하는 스포츠가 농구라고 한다. 그곳의 아이들도 농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농구하는 아이들이 모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허름한 슬리퍼를 신은 아이들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그곳 아이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지낸다고 한다.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했다.

한 필리핀 아이가 내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기에 말해줬다. 그러자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최다원, 최다원!”

필리핀 친구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았다. 나도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

나의 첫 해외여행은 선교여행



수원 차세대 학생들이 아웃리치 떠나기 전 공항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았다. 말위, 자스민, 라셀이라고 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즐겁게 놀았다. 내가 코코넛을 잘 먹으니까 밥을 뽀뽀 흘리며 코코넛을 또 따다준 필리핀 오빠가 기억난다.

“오빠, 코코넛 따다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안녕”이라고 인사했다. 아이들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뛰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기사 아저씨께 멈춰달라고 했는데 내 말을 못 들었는지 계속 달려서 조금 미웠다. 지

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찢어진 슬리퍼를 신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날 것 같다.

나의 첫 해외여행이 선교여행이어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감사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아웃리치에 대해 나눴다. 내가 그곳 아이들에게 좋은 신발을 사주고 싶다고 하니 엄마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자고 하셨다.

“하나님,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희망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공동체

니카라과 아웃리치



송유진 자매

나는 여호수아공동체 에스그룹에 소속돼 있다. 선교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선교를 생각하면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를 가겠다고는 다소 방관적 입장을 고집하고 있었다. 나는 선교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올해 봄 전도사님으로부터 니카라과 아웃리치 팀장으로 섬겨줄 수 있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마음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하기 어려워 기도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 불확실한 대답만 하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 니카라과 아웃리치 갈까요? 팀장으로 섬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웃리치와 직분을 두고 나와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

당시 나는 잘 다녔던 회사를 나와 뒤늦게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터였다. 뒤늦게 진로를 바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심했다. 그간 저

축한 돈으로 학비와 여러 경비를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인색해진 상황이 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기쁘지 않고 내가 드린 것들을 계산했고 내가 드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채워달라는 식이었다. 그런 내게 “거래하지 말라”는 음성은 대가없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초대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백했다.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렵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아웃리치 준비에 돌입했다. 낯선 나라인 니카라과에 대해 알아가고, 팀원을 모집했다. 중미 지역인 지라 비용이 비쌌고 아웃리치 기간도 길어서 팀원이 잘 모집되지 않았다. 전도사님과 함께 금식기도를 해야만 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 고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해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때부터 부담감을 털어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채워주셨다. 12명의 귀한 팀원들을 보내주셨다. 일정이 빠듯하고 비용이 비싸서 걱정했는데 다양한 물품과 후원금이 겹치면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다.

니카라과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거의 하루

그곳에 예비해둔 은혜가 있다



아웃리치 팀원들이 현지 선교센터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가 소요됐다. 긴 비행시간 말고도 우리를 간절하게 한 것은 유독 까다로운 미국 공항의 심사였다. 짐들을 찾고, 다시 부치는 과정에서 공항 담당자들에게 인터뷰와 내용물 확인을 받아야 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준비한 모든 짐들을 니카라과에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선교사님 댁에 짐을 풀고, 니카라과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관계 맺고

있는 현지교회 교인들과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와 사역리 전달, 사촌할영 및 액자 만들어주기, 중보기도 등의 사역을 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미약했지만 그때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니카라과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CGNTV

스리랑카 아웃리치

김영신 PD
(선교교육팀)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그들의 큼직하고 말쑥한 눈망울이 방긋 웃어주던 맑은 미소도 잊지 않는다. 지금도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다.

스리랑카에 가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믿음의 씨앗 교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해야 했고 집에는 아내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두 아이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부담도 있었다. 나는 한 달에 3일 이상 출장을 가야 하고 출장을 다녀오면 일주일 이상 아근을 한다.

그렇게 한 편의 방송을 마쳐야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유를 맛볼 틈도 없이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가야 했다. 아내는 내게 꼭 일주일 이상 스리랑카를 가야겠냐고 물었다. 기정도 생각해달라는 아내의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다.

스리랑카 아웃리치 팀 모임에 제작국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모두 다른 부서 사람들이었지만

광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었다. 7박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마찰도 없었다. 서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할 일을 묵묵히 해주었다.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한 일은 사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웠다.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작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작은 노력을 선교사님과 스리랑카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주었다.

스리랑카에서 우리는 어린이 사역에 집중했다. 어린이센터 두 군데와 마을에서 어린이들을 만났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놀이, 몸 에 스타커 붙여주기, 비눗방울 놀이, 그림 그리기 등을 준비했다. 나는 촬영을 담당했기에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없었지만 카메라 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천사로 보였다.

CGNTV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방송이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그분들이 보기 원하는 방송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CGNTV를 시청하고 있는지 모른 채 나만의 방식과 국내 시청자들의 눈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다.

우리 다시 만나면...



CGNTV 스리랑카 아웃리치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에 목말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표정을 보고 시야가 넓어졌다. 프로그램 제작방향에 대해 더욱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스리랑카에 온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스리랑카를 느껴보고 싶어 거리를 걷고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을 촬영하고 아름다운 집과 거리를 사진으로 담는데 내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거리마다 세워진 우

상들이었다. 특히 불상이 많았다. 스리랑카는 불교국가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루빨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를 태워준 운전기사와도 많이 친해졌는데 그는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불상에 돈을 넣고 절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면 교회에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같이 카레 먹고, 밀크티 한잔하는 거 아때요?”

요셉공동체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이진호 자매

내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누군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면 나서는 경우가 없을 정도다. 그런 내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주님, 저도 이제 서른인데 언제까지 남한테 챙김을 받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용기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한 번도 못 갔던 해외 아웃리치를 가고 싶어요.”

큰 다짐이라기보다 새해 분위기에 휩쓸려 중얼거렸을 뿐이다. 당시 나는 이직이라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겪고 있던 터라 경황이 없었다. 큐티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새해 계획을 구체적인 기도제목으로 작성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의 새해 계획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갑자기 여름휴가 일정을 통보받았다. 아련 우연이. 정확하게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일정과 겹쳤다. 하지만 이미 팀원 모집이 끝난 상태였다. 평소 같았으면 그대로 포기했을 텐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

겠다. 한 번 물어나 보자는 생각으로 담당 전도사님께 이메일을 보냈다. 결국 나는 극적으로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연초에 중얼거렸던 대로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분명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서

드디어 남아시아 B국에 도착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도와 어린이 사역에 집중했다. 낮설고 어색했을 텐데 남아시아 B국 어린이들은 거부감 없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곳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반성했다.

그곳에서 만난 어린이들에게 “같이 하고 싶다”는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발짓으로 내 마음을 전했다. 그런 나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전달됐나 보다. 우리가 알려주는 것들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나는 그동안 계속 사랑받고 있었는데 괜히 겁먹고 움츠러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역 마지막 날, 우리 팀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

적극적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남아시아 B국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다.

했다. 수도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오지에서는 소수민족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았다. 이 초등학교에는 약 2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다. 나는 영어 유치원 교사 경력이라는 이유로 가장 나이가 어린 어린이 60여 명을 맡게 되었다.

나이 어린 아이들 앞에 서려니 다리가 떨렸다. 그러나 긴장도 잠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예배 하시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용기가 샘솟았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 리코더 불기, 손거울 만들기, 위생교육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

다.

하나님은 이번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를 통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적극적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나의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번 아웃리치의 감동과 깨달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는 내가 될 것이다.

S브릿지공동체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김미순 자매
(S브릿지공동체)

2년 전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사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진행됐다. 나는 청지기 자세로 사업을 열심히 이끌어나갔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달라졌다.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씩 내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가 세운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사업이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생각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 바로 아웃리치였다.

하나님이 나를 아웃리치 자리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참가신청을 했다. 내게 허락된 시간, 물질, 달란트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나는 S브릿지공동체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팀에서 중보자로 세워졌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 지 고민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있는 아웃리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기도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었다

우리 팀은 순조롭게 항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도제목이 생겼다. 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요 2:2-11) 말씀을 떠올렸다. 팀원들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네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첫 번째는 풍족함을 위해 기도했다. 성경 말씀처럼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양질의 포도주를 흡족하게 마시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위해 기도했다. 잔치를 섬기던 하인들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했다. 세 번째는 기적을 보았으니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번 아웃리치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는 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적은 바로 일어났다. 뜻하지 않던 재정후원이 들어왔다. 아웃리치 모든 일정과 사역 속에도 은혜가 풍성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고 매끼마다 풍족함이 넘쳤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시간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다.

아웃리치 첫 날에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공동체 기숙사 학생들과 길거리에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아웃리치 둘째 날에는 계획에 없던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팀원들 모두가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느껴졌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했던 목사님, 선교사님, 멘토님, 팀원들 그리고 남아시아 F국의 영혼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며 화관을 씌워줬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시간이었다. 5박6일 동안의 귀한 잔치에 초대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체로 돌아간다. 선한 청지기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성실히 일하려고 한다.

GIL공동체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박은미 자매
(GIL공동체)

우리 여정은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간 동아시아 B국은 차와 말을 교환하던 세계 최고의 교역지였다. 해발 4500m에 위치한 산에 5000km가 넘는 장대한 길이 나있는 곳이다.

우리 팀이 이번 아웃리치에서 올라가야 할 M산은 국가의 경계를 이루는 불교도들의 4대 산이다. 이 산을 숭배하는 종족은 M산을 참배하지 않으면 사후 안식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만큼 이 산을 신성시한다. 이산은 양의 산이라고 불린다. 마침 올해가 을미년(乙未年)이다. 양띠 해다. 그들은 이산을 양띠 해에 순례하면 130배의 공덕, 기미년에 순례하면 1300배의 공덕이 쌓인다고 믿는다. 이것을 믿는 부족이 이산을 순례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번 아웃리치에서 한 사역은 이 산을 오르며 기도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체력이었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우리는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주말에는 팀원들

과 함께 등산을 다녔다. 인왕산을 시작으로 북한산, 관악산까지 섭렵했다.

드디어 8월 1일 아웃리치 일정이 시작됐다. 비행기를 타고 동아시아 B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네 명의 선교사님과 만났다. 바로 집을 옮기고 사역지로 이동했다. 그곳에 마련된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마을로 이동했다.

아웃리치 셋째 날 팀원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등산을 시작했다. 가뭄에는 2박3일 동안 필요한 개인 짐과 식량이 들어있었다. 여자들은 8kg 남자들은 10kg 무게의 배낭을 썼다. 우리 일행 앞에는 1부족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80세 할머니부터 아장간 장강은 아가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했다.

무거운 가방이 어깨를 짓누르고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따갑게 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길을 걸었다. 긴장의 연속이었다. 하루 10시간씩 산행을 마치고 나면 온몸을 파스로 도배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 1부족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스쳐지나가는 1부족에게 말을 건넸다. “짜시텔레(축복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의 말을 건넸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물었다. “왜 저들이 산을 오르고 있을까요?”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유



4,500m M산을 등반하고 있다.

런데 그것은 답이 아니었다. 그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다. 이산을 순례하고 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만드는 이유였다.

맞는 말이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봤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했다. 그 땅과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

다. 그들의 믿음이 헛된 우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했다. 열흘간 동행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용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지금도 M산을 오르고 있는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물과 관광자원 풍부한
'네팔'바라트 목사, 만지라 사모
(온누리M센터 네팔어예배)

내가 살던 네팔은 가장 아름다운 국가 중 하나다. 중국의 티베트와 히말라야 산맥을 사이에 두고 있다. 넓은 초원과 산맥이 있는 네팔은 물과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네팔 국민 중 80%는 힌두권 문화를 접하고 있다. 330여 가지의 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지리적, 종교적,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부족간의 언어와 생활 습관이 다르다. 네팔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다.

“나마스페”

네팔 사람들의 환영 인사다. 그들은 방문객을 ‘신

이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했다’고 여긴다. ‘나마스페’의 뜻은 “나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드립니다”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아마시”라고 인사한다. 이것은 “예수님(메시아)은 승리자입니다”라는 뜻이다.

네팔 음식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졌다. 보통 뜨겁고 맵고, 짭 음식이 주를 이룬다. 다양한 맛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달 밧 타카리(Dal Bhat Tarkari)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국과 밥, 그리고 커리가 함께 나오는 음식이다. 네팔 사람들은 국을 ‘달’, 밥은 ‘밧’, 커리는 ‘타카리’라고 부른다. 쌀밥에 마를 갈아 넣은 수프와 커리, 채소절임 등을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 네팔 사람들의 주식에 해당된다.

동그란 쟁반에 섞어 먹는 음식도 있는데 이것을 ‘네팔리 탈리’라고 부른다. 네팔 사람들이 즐겨먹는 커리 요리에는 주로 닭고기와 염소고기를 쓴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채소류로 만든 커리도 있다.

네팔 사람들은 하루에 4끼를 먹는다. 보통 6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오전 10시에 점심을 먹는다. 오후 3시에 ‘카자(새참)’를 먹고,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저녁식사를 한다.

네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소가 도로 위를 지나 다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네팔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한다. 그래서 소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는 부족도 있지만 대부분의 네팔 사람들은 닭고기를 주로 먹는다. 네팔 사람들에게 최고로 꼽히는 음식은 단연 양고기다.

네팔은 연애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대가 바뀌면

1. 네팔의 행사와 축제
2. 네팔의 전통 음식 ‘달 밧 타카리’

서네팔 사람들도 예전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연애를 허락하지 않는 문화는 남아 있다. 네팔 사람들에게 정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결혼이 성사되면 신랑과 신부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신부는 무조건 신랑의 집으로 가야 한다. 참고로 네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신분제도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네팔에서 결혼

할 때 경제적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다. 세대가 바뀌면서 요즘 세대들은 신분제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대부분 따르지 않는다. 네팔의 결혼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네팔에서는 결혼식이 끝난 뒤 새신부와 새신랑이 신랑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산다. 새신랑 집에서 살림을 차리는 것은 부모님께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목회칼럼 윤석원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청년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율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살전 2:4).

이 말씀은 이번에 다녀온 몽골 아웃리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우연히 받은 말씀카드에 그렇게 적혀있었다. 흘려듣지 않고 계속 묵상하게 되었다. 다시 보고 또 보며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상황이 열악했다. 100명의 믿지 않는 현지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해야 했고, 장소도 열악했다. 불평에 사로잡힐 뻔하다. 감사와 화개로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한 것이 바로 이틀 전이었다. 그 날 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기에 더욱 확신이 생겼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내안에도 웅숭웃음처럼 일어났다.

사실 첫날 저녁집회 중에 일이 있었다. 몽골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집회 분위기에 실망했을 한국 청년 봉사자들이 있을까봐 “원래 첫날은 그래”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했다. 하

지만 나도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다. 낮에 진행된 영어캠프와 다른 워크숍들은 행복하게 잘 진행되었었다. 그것들과 대조적으로 뜻뜻하지 않게 보이는 집회 반응은 나를 적잖이 당황시켰다. 설교를 한 나로서는 마흔한 설교에 대한 자괴감도 밀려왔다.

그러던 내게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격려는 나의 시선을 주를 바라보게 했다.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했다. 동시에 얼마 전에 치러진 하영조 목사님 추도예배에서 최도성 장로님이 하신 간증이 뇌리를 스쳐갔다. 하 목사님이 소천했을 당시 위기와 불안함에 사로잡힌 장로님께 주셨던 음성이었다.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 음성이 내안에도 울려 퍼졌다.

쉬는 시간마다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몽골 아이들도 강동 온누리교회 선생님들의 계속되는 사랑에 담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둘째 날 집회에서는 더 많은 은혜들이 부어졌다.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손이 굳어버린 아이가 있었다.

전도사님과 권사님의 기도로 그 아이를 묶고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 치유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믿음의 요청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말씀이 심겨지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었다.

첫날 술에 취해있던 캠프장 주인이 둘째 날 몸이 아픈 자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게 찾아왔다.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다. 기도 후 은혜를 받았는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편의를 봐주었다. 마지막 날 현지 버스기사와의 갈등이 생겨 1시간 이상 출발을 못하고 피약실에서 고생할 때도 우리의 아군이 되어 도움을 주었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열악했던 캠프장소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막힘이 되지 못했다. 성숙한 청년들과 참가자들은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다. 물이 안 나오는 캠프장에서도 함께했던 장로님은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며 청년들보다도 더 큰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율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를 옳다 인정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 준비 한창

꺾기대회 개최, 30일부터 참가자 모집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7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이타 현지 교회는 벌써 13차례에 걸쳐 실행위원회를 열고 러브소나타 집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에는 꺾기대회를 개최했다. 꺾기대회는 러브소나타 협력교회들이 모여 각오를 다지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대회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꺾기대회는 사이키복음 그리스도교회와 오이타복음 그리스도교회채플노아에서 열렸다. 가아금 연주자 이슬기 자매가 게스트로 출연해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꺾기대회에 참가한 기무라 도모코 성도는 “이슬기 자매의 가아금 연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같았다”면서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하키타 카즈오 성도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

서 “딱딱하고 정치적인 한일관계의 벽을 넘어(음악으로 하나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고 싶다”고 했다.

10월에 러브소나타 집회가 막 오르는 오이타 현은 교회가 67개밖에 없을 정도로 크리스천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현지 실행위원회는 오이타현에 인접한 후쿠오카, 구마모토, 미야자키, 아마구치현에도 포스터와 전단지 등을 발송해 집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8월 30일부터 4주 동안 참가자를 모집한다. 러브소나타 한국 참가자들은 러브소나타 집회장을 찾은 일본인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는다. 현지교회를 방문해 현지 일본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한다. 러브소나타 화관제작 봉사자도 모집한다. 8월 26일 오후 1시에 서빙고 미션홀에서 모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꺾기대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이 이슬기 자매의 간증을 듣고 있다.

러브소나타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첫 모임: 8월 26일(수) 오후 1시
장소: 서빙고 미션홀(선교관 1층)

문의: 류석인 권사 010-2824-3408
러브소나타 본부 02-749-1149

■참가자 간증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행복해지셨습니까?”

가아금 연주자 이슬기 자매가 ‘happiness’라

는 곡을 연주하고 나서 건넨 말이다. 나는 이 곡을 그녀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다. 내가 이슬기 자매의 반주를 해줬기 때문이다. 훌륭한 연주자의 반주를 했다는 사실이 나에게서 꿈같았다. 나의 작은 능력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계명 하나하나가 합쳐져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필요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이슬기 자매가 가아금을 연주할 때마다 흘러나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내 마음 속에 울려 퍼졌다. 어쩌나 아름다운지, 필요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가아금 연주와 내 부족한 반주가 어우러졌듯,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에도 게스트가 출연

해 연주하고 간증을 한다. 그들의 연주와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벌써부터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기다려진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 고토 교코(사이키복음 그리스도교회)



NGO 더멋진세상, 의료지원 사업 활발

세네갈 의료진 2명 초청,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세네갈 의사 두 명과 어린이 심장병 환자 한 명을 초청해 의료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세네갈에서 마취과 전문의와 심장외과 전문의, 어린이 심장병 환자가 NGO 더멋진세상의 초청을 받아 입국했다.

세네갈에서 온 의료진들은 부천 세종병원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다.

세네갈에서 온 어린이 심장병 환자 짜에르노(10)는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고, 수술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8월 11일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다. 현재 경과를 지켜보며 회복 중이다.

짜에르노는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NGO 더멋진세상의 해외 의료진 초청사업은 지난 4월 이집트와 르완다에 이어 두 번째다. 해외 환자를 초청해 치료를 돕는 사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김현준 기자

8월 26일 서빙고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니어 아카데미(Senior Academy)가 8월 26일 개강한다.

2015년 2학기 서빙고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 스토리가 있는 가을 음악여행, 재미있는 구원 이야기, 홈 케어법(셀프 건강법), 노년 건강 식생활, 노년 건강, 전도집회, 영화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문의: 서빙고 02-3215-3533

서빙고 헬로맘 스쿨 참가자 모집

서빙고 헬로맘 스쿨에서 가을학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서빙고 시온홀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열린다. 임신을 기다리거나 출산 전후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녀를 동반해도 된다. 회비는 2만원이다.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ischool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2786-6221

변동코이노니아 지적장애인, 2015년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참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변동코이노니아 소속 지적장애인 화가들이 작품을 출품한다.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2015년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Asia Hotel Art Fair 2015)’에 변동코이노니아 소속 지적장애인 화가 10명이 그린 38점의 특별 전시된다.

2015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사전 신청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관람을 원하

는 성도는 변동코이노니아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아시아 지역의 미술 흐름을 선도하는 유력 화랑들이 참여하는 미술전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전시공간에서 탈피하여 호텔 룸에 작품을 전시하도록 기획된 신개념의 미술전으로 유명하다.

문의: 02-985-3609

/ 김현준 기자

21기 온누리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주간·야간반 모집

21기 온누리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한다. 전도폭발훈련은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배우는 훈련이다. 전도폭발훈련은 주간반과 저녁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주간반은 9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 저녁반은 9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2층 콘서트홀이다. 회비는 8만원.

문의: (주간반) 김태리 010-7900-3908 (저녁반) 김숙경 010-2231-6357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농어촌선교팀 아웃리치 후기



/ 이명혜 성도(온누리 전도학교)

이토록 아름다운 연합이!

지난해처럼 농어촌선교팀, CMN 라파티, 온누리 전도학교 사역자들이 연합해 경상남도 산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간 곳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내대교회'다. 아웃리치 출발 당일 내 몸은 먼 길을 가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의 기대대로 아웃리치 현장은 환희 그 자체였다. 성도들 간의 연합이 눈부셨다. 한 마디로 환상적이었다. 우리는 식당 봉사, 의료봉사를 통해 주민들을 섬겼다. 특히 한방의료팀은 어르신들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오미자차를 냉동시켜 가져오는 정성을 보였다. 이미용팀의 활약도 눈부셨다. 이토록 아름다운 연합이 지구촌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웃리치 첫째 날 비가 오는 중에도 우산을 들고 노방전도를 나갔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동네라 전도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전도를 하던 중에 '미숙이네 쉼터'라는 펜션을 운영하는 미숙 씨를 만났다. 10년 넘게 서울로 커피공부를 하러 다니는 지인이 준 것이라며 직접 갈아 만든 부드러운 커피와 재배한 토마토를 대접해줬다. 귀한 것을 대접받았으니 우리도 귀한 것을 드리겠다고 복음을 전했다.

아웃리치 둘째 날에는 의료팀과 함께 링거를 맞으면서 누워계시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천국에 가야 되겠

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다른 어머니 한 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셨다.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불교와 도교,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짧은 시간에 이곳을 복음화 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아웃리치 셋째 날에는 그동안 전도했던 가정들을 재방문했다. 어제 만난 어머니를 찾아갔으나 발에 나가셔서 만날 수 없었다. 대신 72세 되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친께서 내대초등학교 부지와 내대교회 부지로 2필지의 땅을 기증하셨다고 했다. 어르신은 군대에서 한쪽 귀를 다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셨다. 우리는 '5분 전도' 내용을 A4용지에 표를 그리면서 복음을 전했다. '불안과 두려움'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이셨고, '평안' 부분에서 마음을 여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5분 전도'라는 강력한 전도 도구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다. 마침 오늘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교회에 가셔서 등록을 하셨다.

전도뿐만 아니라 도배, 농어촌 일손 돕기, 의료봉사 등으로도 영혼 구원을 위해 애썼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름답게 어우러진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 벌써부터 내년 아웃리치가 기대된다.

■ 고등부 캠프 후기



/ 박정윤 교사(도곡 고등부)

기뻐 뛰며 찬양하며

도곡교육관 고등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캠프를 다녀왔다. 많은 친구들이 캠프에 참석했다. 당일 등록도 많았던 만큼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었다.

캠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정리하느라 조원들과 이야기 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과연 내가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저녁예배를 드리고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조별 나눔을 진행했다. 어색함과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나는 조별 나눔을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을 찾았다. 왜 나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셨나고, 왜 아이들에게 변화를 주시지 않으셨나고 여쭙다.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게 맡겨진 역할은 아이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인데..."

다음날 아침 큐티 나눔을 하고 아이들과 기도제목을 나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같은 것을 느끼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캠프 둘째 날에는 십자가의 5가지 의미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다. 십자가는 선택, 축복, 사역, 아

라니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었다. 이 설교가 나에게 너무 아픈 말씀이었다. 매주 주일 고등부 선생님으로 선다는 것이 기쁠 때도 많지만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니 패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힘들 때마다 도망가고 싶어 하는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를 통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 나를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나는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과 나는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친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갔다.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예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영아부 캠프 후기



/ 김윤정 교사(서빙고 영아2부)

아이들에게 온전히 새겨지기를

서빙고 온누리교회 영아부 캠프가 시작되기 전, 부서 리더십 선생님께서부터 데코팅장으로 섬겨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섬기겠다고 해놓고 망설이는 시간이 찾아왔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캠프 데코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성경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하나 이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캠프 데코에 대한 기획을 하고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기도할 때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서보다 한 주 먼저 캠프를 진행한 유치부의 데코를 보게 됐다.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솜씨가 뛰어났다.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었드렸다.

"우리 영아부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너에게 주었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세 명의 영아부 데코 담당 팀장님들은 첫 모임에서 캠프에 집중할 수 있는 데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었다. 처음 다짐을 기억하는 순간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과 조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데

코를 준비하며 작업도 속도가 붙었다.

캠프 시작 전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 앞에 놓을 말씀판 두 개를 구상했다. 히브리어와 그 뜻을 알 수 있는 한글판을 만들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 계획을 들은 남편이 나를 뜯어말렸다. 글자의 한 자, 아니 한 점이라도 틀리면 어떡하냐는 것이 이유였다.

나는 "한 자만 파서 만들어보고 결정할게"라며 남편을 진정시켰다. 그렇게 한 자 한 자 히브리어로 된 말씀판을 파기 시작했다.

캠프에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성스레 한 자를 파고, 또 한 자를 파고 세 자를 파올 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이 깜짝 놀라 응원해주었다.

이틀에 걸쳐 히브리어 말씀판이 완성되었다. 다른 준비물들도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역시 멋진 하나님이다. 작은 듯 보이나 오랜 시간에 걸친 작업들까지 기도하며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어 감사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캠프를 마치며 한 가지를 소망하게 되었다. 말씀 판에 새겼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차세대 아이들에게 온전히 새겨지기를 기도했다.

■ 유아 세례 간증



/ 아이: 김세은 부: 김태균, 모: 김수

하루하루 커지는 사랑

아내의 아랫배가 묵직하고 아픈 느낌이 있어 혹시나 하고 받아본 검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일주일일이 채 되지 않아 아내가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했다.

우리 부부는 급하게 응급실을 찾았고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외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새벽 3시에 입원을 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응급실에서 병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차갑게 느껴졌다. 아내는 병실로 가는 침대 이불 속에서 계속 울기만 했다.

마음을 졸이며 아내와 손잡고 기도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다음날 오후 아직 임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자궁외 임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초음파를 한 결과 정상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보낸 2박3일은 우리 부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잃을 수도 있었던 아이를 하나님께 선물 받고 키우는 시간은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보내주신 아이라는 확신이 더 분명하게 생겼다.

그러던 중에 아내에게 심한 입덧이 찾아왔다. 일을 하고 있던 아내가 입덧까지 하게 돼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입덧이 아무리 심해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견디는 아내가 정말 고마웠다.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기도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열 달 후 세운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루 하루 세운이와 함께 보내는 날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축복된 시간이다. 세운이가 찾아온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다. 우리 부부의 인생과 마음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하루하루 커가는 세운이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도 하루하루 커가는 것을 느낀다. 부모가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장로칼럼 하성기 장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우리 가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후대까지 이어질 언약과 확증의 말씀이다. 100여 년 전,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포도청에서 근무하셨다. 어느 날, 마포 어구를 순찰하던 부하들이 이상한 책을 압수해 왔다. 바로 성경책이었다. 당시 포도대장이셨던 증조할아버지는 성경책 한권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읽고 회심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 몰래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을 통해 성경공부도 하셨다고 한다. 당시는 예수 믿는 무리를 잡아 처형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증조할아버지는 믿음을 지켰다.

증조할아버지가 공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당시 증조할아버지는 멕시코에 가면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이민을 결심하셨다.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처분하고, 온 식솔을 데리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멕시코행 배에 오르기 직전 증조할아버지가 갑자기 거동도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한다.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결국 이민을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며칠 지나자 증조할아버지는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일흔이 넘도록 장수하셨다. 만약 증조할아버지가 예정대로 멕시코행 배에 탔다면 우리 가족은 온갖 고생을 하며 노예 같은 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

증조할아버지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잘 이어졌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굳건히 세우셨다. 신촌 창천감리교회 개척을 시작하셨고, 초대 장로직분을 맡아 믿음 안에 사셨다. 그렇게 우리 집안이 믿음 안에서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할아버지는 군인이셨다. 지휘관으로 참전하셨던 할아버지는 전사하시고 말았다. 우리 집안은 전쟁으로 인해 재산과 가장을 잃게 되었다. 온 집안이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졌다.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약속은 틀림없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낳아 안으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으로 모아 보호하셨다. 나를 통해 믿음이 계승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버지의 일곱 형제들이 전쟁 속에 믿음을 떠나 떠돌았지만 나를 통해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온 가문과 그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졌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앞으로도 우리 집안의 후손 대대로 전해질 것이다.

나는 장로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명과 믿음을 잘 지킬 것이다.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 칭찬을 듣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권사칼럼 김희수 권사(이촌공동체)

사명을 완수하는 길

지난 달 프랑스 여행 중에 동성애자들이 하는 퍼레이드를 봤다. 예쁘게 생긴 남자가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성과 손을 잡고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가고 있었다.

30분 이상 계속되는 행렬 속에 아주 키 큰 여자가 어린 티를 갖췄은 소녀를 끌고 가는데 그 소녀의 표정이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람들을 향해 구원을 요청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을 바라보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반항하는 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 소망을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육체를 허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견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션이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엡 3:6).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교회가 섬기지 않는다면 가정과 나라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아래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안에서 이루어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엡 3:10-11).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자식이 미래였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은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 학문보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경책을 집안의 가보로 여기셨던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를 소중히 공동체로 지켜왔기에 오늘이 있다. 땅 끝까지 선교사를 보내 미래를 심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때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신앙에세이 김현실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광복절 특사

나에게는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다. 몇 년 전 아침 출근하는 길이었다. 급한 전화를 받으라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코너를 도는데 교통경찰과 눈이 딱 마주쳤다.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던졌지만 경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운전 중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종이를 받았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났다. 편지함에 ‘즉결심판’을 알리는 엽서가 도착해 있었다. 바쁜 일상과 우편전달 사고 등으로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당황스럽기도, 어이가 없기도 해서 지인에게 물었더니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당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결심판을 알리는 엽서를 들고 착잡한 심정으로 경찰서에 갔다. 죄인이 된듯했다. 기어들이기는 목소리로 “저, 즉결심판 때문에 왔는데요”하니, 담당경찰이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놀란 나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유인즉, 내가 광복절 특

사로 사면대상이라는 것이었다. 기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부리니께 빠져나왔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는지? 감격으로 가득했다.

그때 예수님이 떠올랐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뱃속 깊이 느껴졌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강원도에서 열린 수련회를 마치고 설교에 늦을까봐 속도를 내다 걸린 ‘속도위반 고지서’였다. 잠시 갈등하다 다시 차를 돌려 경찰서로 되돌아갔다. 담당 직원에게 속도위반 고지서 사면 여부를 물었다. 그 직원이 내게 한 소리였다. “그건 그냥 내세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범칙금 사면과 더불어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도 면해볼까 하는 심정으로 다시 경찰서를 찾아 간 내 자신이 너무 창피했다. 나는 사면으로 자유함과 권리를 회

복해놓고 또 다른 특혜가 없는지 바라고 있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사면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었다. 특권을 받았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법을 지키는 의무를 행하는 데는 소홀한 것 같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부터 돌아키지 않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한다. 죄를 짓고, 은혜를 구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나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경험했다. 100%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였다. 다시 한번 광복절 특사의 기억이 떠올랐다. 십자가 사면에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영을 분별하라

당시 사탄은 예수님이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없고, 기록에 의존하게 되니까 기록이 잘못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면서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기록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잘못 기록해 놓으면 후대는 잘못된 역사를 보고 믿게 됩니다. 그 기록을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역사적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 얼마나 맛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의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영이 거짓 영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영이 거짓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너지거나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역사적으로 고백해 왔던 모든 공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로부터 출발합니다.

거짓된 영과 참된 영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초대교회 이후 수백 년 간 기도와 토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이심을 받아들이도록 공표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 둘 중 하나를 무너뜨림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

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5절).

입술로는 정통교리 같지만 속으로는 세상에 속한 것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아니라 세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예언자들의 분별하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덩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마 7:15-18).

거짓된 영과 참된 영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능력 그 자체는 참된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적인 영적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참된 영의 증거가 아닙니다. 초월적 현상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초월적인 현상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입니다. 표적을 경험한 주인공의 태도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중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을 봤다는 것을 언제 이야기 합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을 경험했다고 설명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영적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것 그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거나 과장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을 보고도 천국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도 한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체험과 은사는 독이 되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아닙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져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영

참된 성령의 역사는 성육신적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성육신적 영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육신적인 영성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분법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몸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거처입니다. 정신적인 것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활은 우리 육체 안에 숨겨진 죄의 습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을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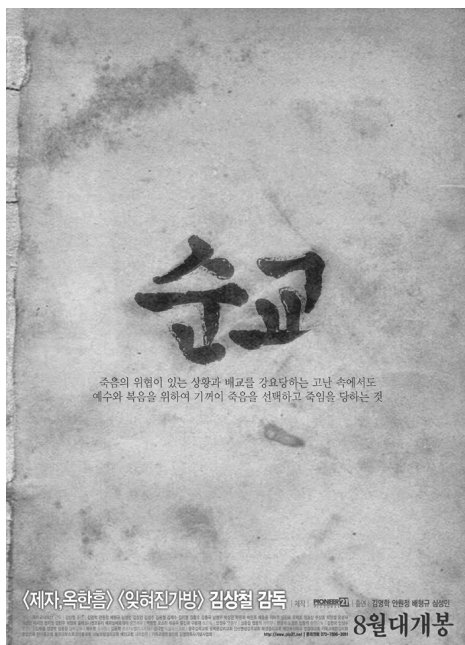
이단과 사이비들은 틀림없이 일상을 붕괴시킵니다.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공교회와 단절시킵니다. 참된 영의 사람은 사람들을 가둬놓지 않습니다. 주변사람들과 단절시키고, 세상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참된 영의 역사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참된 영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성육신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영에 순종할 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참된 성육신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보고 싶은 영화 ‘순교’



복음의 빛진 자로서 선교를 위해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됐다.

해외 파송 선교사 중에 한국인 최초로 순교한 ‘김영학 목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형규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의 죽음은 부활이며, 승리며, 영광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김영학, 배형규 목사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 ‘순교’에 담겼다.

영화 ‘순교’는 지난 8월 13일 서울 마포구 필름포럼과 종로구 스포츠 하우스에서 개봉했다. 이 영화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영화라며 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화 순교는 〈잊혀진 가방〉(2010), 〈중독〉(2013), 〈제자 육한흠〉(2014)을 연출한 김상철 감독의 작품이다.

목숨과 바꾼 그 이름 ‘선교’

김영학 목사(1877~1933)는 황해도 금천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1918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19년 전국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김영학 목사는 3.1만세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2년 출소한 그는 러시아 선교사로 자원했다. 당시 러시아는 공산혁명으로 흥흥한 시기였다.

1930년 러시아 공산당은 김영학 목사를 반동죄로 체포하고 배

교를 강요했다. 그러나 김영학 목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듬해 10년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된 그는 복역 중에 순교했다. 김영학 목사의 아내 안원정 사모가 남긴 자술서를 인용해 영화를 제작했다.

200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샘물교회 성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영화 순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피랍돼 목숨을 잃은 배형규 목사(1965~2007)도 조명했다.

배형규 목사는 2007년 7월 한민족복지재단 아프가니스탄 단기선교 팀장으로 샘물교회 단기선교팀원들과 선교를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순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배형규 목사를 선교사로 추서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김영학 목사와 배형규 목사.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부활이며, 승리며, 영광이다. 영화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 보자.

문의: 070-7886-3691